

배경음악도 함께 제공하는 소설책 출판

백애리 | CBS <행복한 책읽기> 작가

소설을 읽으면서 특정 상상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주인공이 어떤 음악을 듣는 장면이 나올 때, 이 곡은 뭘까? 나중에 한번 찾아 봐야겠다, 하고서 잊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지금 '마일즈 데이비스'와 '듀크 조던'을 언급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그들의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백 마디의 설명도 내 상상력 밖의 일엔 손을 쓸 수 없다. 나는 이미 소통할 수 없는 것이다.

책에 CD가 부착되어 있어서, 각 페이지마다 언급하는 그 곡들을 독자들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페이지마다 가야 할 트랙을 친절하게 적어주면 좋겠다. 말하자면 영화와 O.S.T.가 함께 출시되는 것처럼 책도 그와 함께 들어야 할 음악을 함께 붙여서 출간하는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이 현재 틀어 놓은 음악을 함께 듣는다면 독자들은 주인공과 동일 시간대를 사는 것처럼 느끼며 더 큰 공감을 할지 모른다.

+ 소설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면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어떤 음악을 설핏 듣게 되는 상황은 소설 도처에 깔려 있다. 우연히 아무거나 뽑아든 CD를 듣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음반을 틀었을까? 가령 이런 것이다.

“저녁밥을 먹고 나자, 하나코는 내 선반을 이리저리 훑으면서 벨린다 카라일의 CD를 꺼냈다. (...) 경쾌한 목소리가 I must I really love you dearly라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 <낙하하는 저녁>의 한 장면이다. 지금 두 여자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나는 남자에게 막대한 옛 여자 '리카'이고 CD를 꺼내 음악을 틀은 '하나코'는 새로 굴러들어온 여자란 말이다. 둘이 맞닥뜨린 이 장면에서, 음악 CD를 집어든 굴러들어온 둘이 과연 경쾌한 음악을 틀지 우울한 음악을 틀지 가오리는 무척이나 갈등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정황과 심경을 다각적으로 감안하면서 꽤 공을 들여 선곡했을 것이다. 삼각관계에 놓인 장본인 둘이 아무렇지 않게 저녁밥

을 해 먹고 나니 얼마나 서먹할까. 이 불편한 분위기와 그 상황의 어처구니없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가는 두 주인공들에게 굳이 벨린다 카라일의 경쾌한 목소리를 틀어줬을 것이다.

책에 CD가 달려 있어서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벨린다 카라일의 <I must I really love you dearly>라는 곡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 어색하고 우스운 상황을 오감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 사진, 삽화로는 전달되지 않는 질은 무드

요시모토 바바나의 소설 《불륜과 남미》는 그보다 더하다. 작가의 여행 경로를 따라가는 듯한 사진, 그림, 그 풍경들은 남미 특유의 뜨겁고 강렬한 햇빛, 격렬한 색채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남미 도처에서 배어나오는 질은 무드를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했다. 반도네온의 탱고 음율, 그 음울한 무드를 무슨 수로 말이나 사진으로 설명한단 말인가?

“나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불륜에 빠져 있었다. 상대는 전에 다녔던 회사의 상사로, 피아졸라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때로 아침의 거실에서 피아졸라를 광광 틀어놓으면 그 곡이 아무리 이름 없는 곡이라도 마음이 애뜻해진다.”

-요시모토 바바나의 《불륜과 남미》 중에서

탱고 마니아인 남편이 틀어놓은 전 애인의 애청곡, 그 곡을 들으며 전 애인을 추억한다는 이 아이러니라니! 피아졸라의 강렬하고 아슬한 선율과 탱고라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피아졸라에 대한 아무런 인상도 기억도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반도네온으로 연주하는 피아졸라의 연주곡 하나를 직접 듣는 것보다 더 강렬한 전달은 없을 것이다. 하나같이 불륜 상황에 놓여 있는 《불륜과 남미》 주인공, 이들의 가지각색 애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선 탱고 몇 곡이면 족하다.

✦ 페이지마다 선곡된 배경음악들, 영화 <엘리자베스 타운>

‘책을 읽으면서 그 배경이 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엘리자베스 타운>을 보고 나온 직후였다. 남자 주인공 드류 베일러(올란도 블룸 분)가 여자 주인공 클레어(쿠스틴 던스트 분)와 헤어질 때 클레어는 드류의 손에 지도책을 쥐어 준다. 클레어가 직접 만든 그 지도책에는 각각의 페이지마다 그녀가 기록한 그림 지도와 함께 CD들이 꽂혀 있다. 어느 도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이 곡을 틀어요, 라는 주문과 함께, 여정을 함께 할 음악들을 하나하나 선곡하여 꽂아 놓은 것이다.

✦ 음악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결정한다

무라카미 류의 소설 《마이 퍼니 발렌타인》의 한 장면을 보면 주인공은 재즈 바 주인에게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신청한다. 그는 주인이 틀어준 쳇 베이커의 보컬을 들으며 생각한다. “쳇 베이커의 노래도 애절하다. 그 외에도 많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지만, 이상하게도, 남자 가수 쳇 베이커의 음성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그리고, 이 노래만큼 사람을 상냥하게 해주는 건 없다.” 특정 소설가들은 이처럼 음악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아니, 주인공에게 ‘들려준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나는 작가들이 그 곡들을 고르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주인공은 왜 하필 ‘롤링 스톤스’를 들을까? 또

왜 ‘비틀즈’를 들을까? 가령 소설가가 주인공을 그릴 때, 그 주인공이 즐기는 알코올이 막걸리나, 보드카나, 카테일이나에 따라 독자들은 각각 다르게 주인공의 캐릭터를 파악하게 된다. 주인공이 개량 한복을 입었는지 블랙 슈트를 입었는지에 따라 독자는 다른 주인공을 상상하게 된다. 그렇듯 ‘산울림’을 듣는 사람과 ‘한대수’를 듣는 사람 간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가가 그렇게 엄선을 하여 선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롤링 스톤스’가 어떤 음악을 하는 작자들인지 알리 없다. ‘비틀즈’의 음악풍이 어떤지도,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고 같은 락을 했음에도 ‘롤링 스톤스’와 ‘비틀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뭔지 모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두말 해 뭐하랴, 주인공이 지금 그 페이지에서 플레이어를 틀어놓고 듣는 이 음악을 나도 같이 듣자.

위에서 말했듯이 작가가 주인공들에게 들려주는 그 음악들은 반드시 특정한 맥락이 있다고 본다. 독자도 이젠 그 맥락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다.

✦ 책을 둘러싼 콘텐츠들

나는 음악을 나지막이 틀어놓고 책을 읽는 편이다. 나에게 있어서 음악은 일종의 독서 배경인 것이다. ‘책+CD’ 형태의 책 발간이, 각 장마다 어떤 음악을 배경으로 글을 읽으면 더 훌륭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지시등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분명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텍스트만으로 보여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언제부턴가 사진 이미지 하나 없는 책은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텍스트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 이미지와 삽화 등을 책에 집어 넣은 지 오래이다. 비주얼한 책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음악이 굳이 책과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다. 사실 많은 편집자들은 기본적으로 책은 활자로,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서점에 나가보면 온통 평평한 책들 뿐이다. ‘종이책’이라는 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건 책의 순수성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눈을 씻고 보면 오로지 텍스트로만 구성된 책도 없다. 하다못해 표지에 이미지라도 하나 얹혀 있지 않은가.

✦ ‘오디오 비주얼’한 책읽기의 즐거움

다행히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종이 속의 활자들을 씹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책읽기가 사뭇 고통스러울 때가 올지 모른다. 일주일에 두세 권의 책은 죽히 읽어내야 할 내 직업의 특성상, 나의 취향이 아닌 많은 책들까지도 모두 소화해내야 하니, 앞으로는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오디오 비주얼한 책읽기의 즐거움도 한번 만끽해보고 싶다. 이렇게 책의 생김이 조금씩 변형되어도 ‘책’이라는 자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림이 많아져도 음악이 들려와도 엄연히 독자들은 눈알을 굴리며 열심히 활자를 읽을 것이다. ■■